

10월 첫번째 주 그룹큐티나눔

우리를 도우소서



역대하 14:2-15

마음 열고, 찬양과 나눔

- 예수는 나의 힘이요(찬송 93장, 구 93장)
-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눠봅시다.

아사왕의 초기 사역(14-15장)과 후기 사역(16장)이 대조됩니다. 그는 통치 초기에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사가 하나님을 떠나 아람 왕을 의지하자, 하나님은 그에게서 평화를 앗아가십니다. 아사의 생애에서 가장 형통한 시기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도움을 구하는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마음 다해, 말씀과 나눔

1. 하나님은 정직하고 신실한 아사왕과 동행하며 복을 주십니다(2-7절).

1)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자로 인정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2-5절)

이방 제단과 우상을 없애고, 백성에게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찾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아사가 유다 백성에게 명하여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라고 명령한다(4절). '여호와(주)를 찾는다'는 표현은 14-15장에 집중적으로 나온다(14:2, 7; 15:4, 12, 15). 16장에서는 이 어구가 딱 한 번 등장하는데, 그마저 부정적으로 사용된다. 16:12에 '여호와께 구하지(찾지) 아니하고'라는 어구가 나온다. 14-15장이 아사왕의 초기 사역의 신실함을 강조하는 본문이라면, 16장은 아사왕의 불충한 모습을 폭로하는 본문이다. 아사 왕의 '신실'과 '불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여호와를 찾느냐' 여부에 있다. 아사가 여호와를 찾으며 율법에 순종하려 했기에, 자연스럽게 율법에 어긋난 우상숭배 행위를 철폐하려 했던 것이며, 하나님은 그런 아사왕을 의롭다고 칭찬하신 거다.

2) 신실한 아사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6-7절)

유다에 평안을 주시고 전쟁이 없게 하시며,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게 하셨다. '평안하다'라는 말이 5절에 한 번(샤카트), 6절에 두 번(누아흐, 샤카트), 7절에 한 번(누아흐) 나온다. 히브리어 '샤카트', '누아흐' 모두 분쟁이 없는 상태의 안식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께서 신실한 아사왕에게 전쟁이 없는 평화와 안식을 선물하신 것이다.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 아사왕은 국방을 튼튼히 할 수 있었다.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었다. 대적이 쉽게 넘보지 못할 강고한 요새를 구축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할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참 안식과 평화를 선물하신다.

나눔 1 아사왕은 통치 초기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신실한 그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평안과 안식을 선물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은 무엇인지 나눠 봅시다.

2. 아사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승리합니다(8-15절).

1) 아사(유다)의 군대와 구스 군대의 규모는 각각 얼마나 됩니까?(8-9절)

아사(유다)의 군대는 58만 명이고, 구스의 군대는 100만 명에 병거가 300대다. 아사의 군대는 큰 방패와 창을 잡은 군사가 30만 명, 베냐민 지파 중에 작은 방패와 활을 잡은 자가 28만

명, 도합 58만 명이다. 고대에서 이 정도 군대 규모는 절대 작지 않다. 하지만 구스(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이끄는 군대 수는 도합 100만 명이며, 병거도 300대나 되었다. 유다 군이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스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인다. 세상에서 절대적인 힘(Power)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의 힘은 항상 상대적이다. 현재 어떤 힘이 큰 것처럼 보여도 더 큰 힘이 나타나면 왜소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자기 힘을 자랑하며 사는 건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성도는 세상에서 자기 힘을 자랑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절대 힘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존재다.

2) 아사는 구스 군대와 맞서 싸우러 나가서 무엇을 기도합니까?(11절)

여호와만 의지하여 구스 대군과 맞서 싸우려 하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 달라고 도움을 구했다. 강력한 구스군 앞에 선 아사왕은 위축되지 않았다. 이것은 아사가 속 빈 강정이면서 허장성세를 부리는 게 아니며, 자기 힘을 과도하게 신뢰하며 착각에 빠진 것도 아니다. 아사왕이 엄청난 구스군 앞에서 위축되지 않은 이유는 그가 '절대 힘'을 가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아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 그리고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 아사왕은 이 전투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임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 하나님 나라 영적 전투 제일 원리는 자기(세상)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3) 아사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12-15절)

구스 군대를 치셔서 유다가 압승하고 전리품을 많이 얻게 하셨다. 구스 군대를 공격한 주체는 아사와 유다군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12절). 하나님이 구스군을 치시니 그들이 유다 사람들 앞에서 도망쳤다. 그래서 아사와 유다 백성이 구스군을 그랄까지 추격하여 도륙할 수 있었다. 전쟁에서 승리한 유다 백성은 많은 전리품을 획득했다. 아사왕은 전리품 중에서 소 칠백 마리와 양 칠천 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다(참조. 대하 15:11). 그리고 백성들이 여호와만 찾도록 권면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승리와 평화와 안식을 선물하셨다.

나눔 2 구스의 100만 대군의 공격을 받는 위기 상황에서 아사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간절히 도움을 구했습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 내가 드리는 기도는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나눔 3 하나님은 아사의 믿음과 기도에 응답하셔서 유다 군대에 승리를 안겨 주셨습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나누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지체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마음 모아, 함께 기도

삶 -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소서.

공동체 - 우상을 척결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소서.